

G2 는 지금

안전제일(Feat, 미중 정상회담)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US Strategy Analyst 김승혁
China Strategy Analyst 박주영



Issue Brief

미·중 정상회담: '종료' 보다는 '이연'

베이징 정상회담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갈등의 종료' 보다는 '이연'에 가까웠다. 2026년 5월 16일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 자체를 멈추는 데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경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운영 규칙을 만든 것이다. 단기 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미국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카드의 역시 좁아졌다.

핵심은 시진핑이 제시한 '향후 3년간의 건설적 전략 안정성' 프레임이다. 트럼프 역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미국이 꺼낼 수 있는 반도체 추가 통제나 산업 보조금 확대, 대만 무기 판매 같은 조치들이 오히려 합의 위반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생겼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 집중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의 정책 자유도가 줄어든 셈이다.

반도체 역시 같은 흐름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엔비디아 H200의 대중국 판매 승인 자체만 보면 시장 친화적 조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시진핑은 "우리는 결국 우리 칩을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비공개 협상에서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장기 산업 전략과 연결된다. 특히 이미 약 75만 개 규모의 라이선스가 발급된 상황에서도 중국 측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효용'의 관점에서 미국 정치권 강경파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다루지지 않은 의제였다. 희토류와 영구자석 문제가 대표적이다. 2025년 봄 중국의 수출통제가 미국과 유럽 자동차 생산 차질 직전까지 이어졌고, 그 충격이 결국 2025년 10월 미중 휴전 합의를 끌어낸 핵심 동인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전면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지렛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휴전이 2026년 11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연장 여부에 대해 " 지켜봐야 한다"는 수준의 표현만 남겼는데, 이는 행정부 내부에서도 결과를 확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중동전 장기화로 미국 방산 산업의 희토류 수요 의존도가 더 높아진 상황까지 겹치며, 공급망 리스크는 확대되는 흐름이다.

트럼프가 가져온 성과의 구성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잉 200대 발주, 대두·소고기 구매 확대, 원유·천연가스 수출 증가 등은 모두 경기 민감도가 높고 마진 구조가 낮으며, 중국 정책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영역들이다. 반대로 미국이 끝까지 방어한 분야는 반도체 수출통제 유지와 대만 정책 같은 고부가가치·고진입장벽 산업이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미국은 전략 산업을 방어하는 대신 경기 민감 산업에서 단기 성과를 확보한 구조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차 무역전쟁 당시 중국의 200억 달러 규모 농산물 구매 약속이 실제로는 절반 수준 이행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 역시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해석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이 드러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시장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회담 결과 그 자체보다, 그 이후 이어질 일정들이다. 시진핑은 오는 9월 24일 미국 답방을 예정하고 있고, 한 달 뒤에는 현재의 무역 휴전이 만료된다. 같은 시기 트럼프는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패키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의 통화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이런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사례는 사실상 전례가 없다. 결국 8월부터 11월까지의 미중 관계가 다시 지정학·기술·무역 이슈가 한꺼번에 겹치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며,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안정' 역시 상당 부분은 시간차를 둔 변동성 이연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중국, 할 말(대만)은 했으나, 방점은 관계 안정화

2025년 10월 부산 회담 이후 미중 양국 정상이 다시 회동했다.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번 미중 회담 결과는 양국 관계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는 데 방점이 맞춰졌다는 판단이며, 포괄적 무역 합의나 기술 및 공급망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중 관계를 '전략적 안정성을 가진 건설적 관계'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는 향후 3년 또는 그 이상의 중장기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핵심으로 재차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대만 관련 스탠스에 따라 양국 관계가 충돌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대만 문제가 향후 미중 관계 안정성의 최대 변수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 및 무역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합의가 일부 확인됐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을 통해 기존 협상 성과 이행, 무역 및 투자 이사회 설립, 농산물 및 항공기 등 분야 협력 등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초기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 양측은 기존 협상 성과를 지속 이행하고, 관련 관세 조정에 대해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2) 무역 이사회와 투자 이사회를 설립해 양국의 무역 및 투자 분야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동등한 규모의 상호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3) 일부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과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로 했다. 미국은 유제품·수산물 통관 보류 조치 해결, 산동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인정 등 중국 측 관심 사안을,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시설 등록과 일부 주의 가금육 대중국 수출 등 미국 측 관심 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4) 일정 범위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통해 농산물을 포함한 양방향 무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5) 중국의 미국산 항공기 구매와 미국의 항공기 엔진 및 부품 대중국 공급 보장에 대해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측에 따르면 중국은 2026~2028년 매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등을 언급했다. 또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핵심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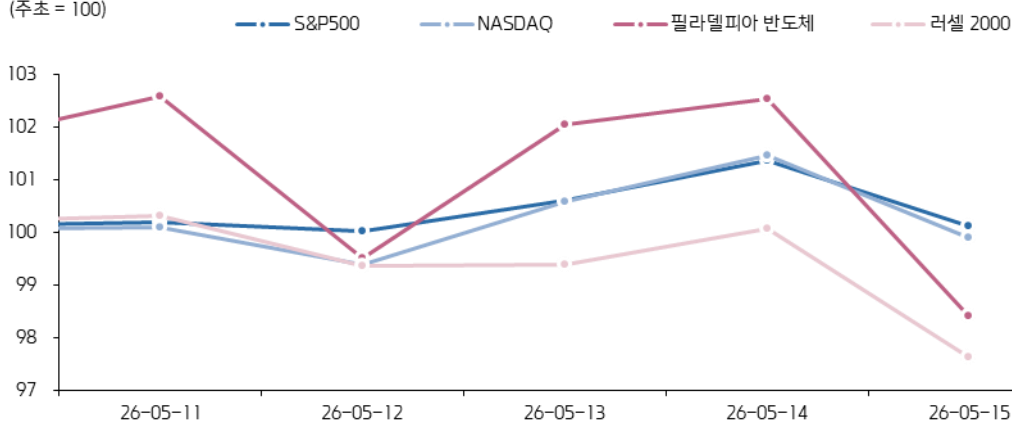
반면 기술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의 막판 회담 합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통제와 희토류 공급망 관련 합의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엔비디아 H200 판매 승인 가능성이 보도됐으나, 실제 판매 여부 및 승인 범위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반기에도 미중 정상 간 외교 이벤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을 미국으로 초청했으며, 왕이 외교부장도 시진핑 주석의 가을 미국 국빈 방문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은 올해 APEC 정상 비공식회의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상호 지지하기로 동의하면서 하반기 세 차례의 미중 정상회담이 예상된다.

증시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미중 회담 성과로 인해 시장의 관심은 중국 내 펀더멘털, 유동성, 산업별 구조 성장성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말 사이 CXMT의 상장 보고서 업데이트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며 중국 반도체 국산화와 AI 인프라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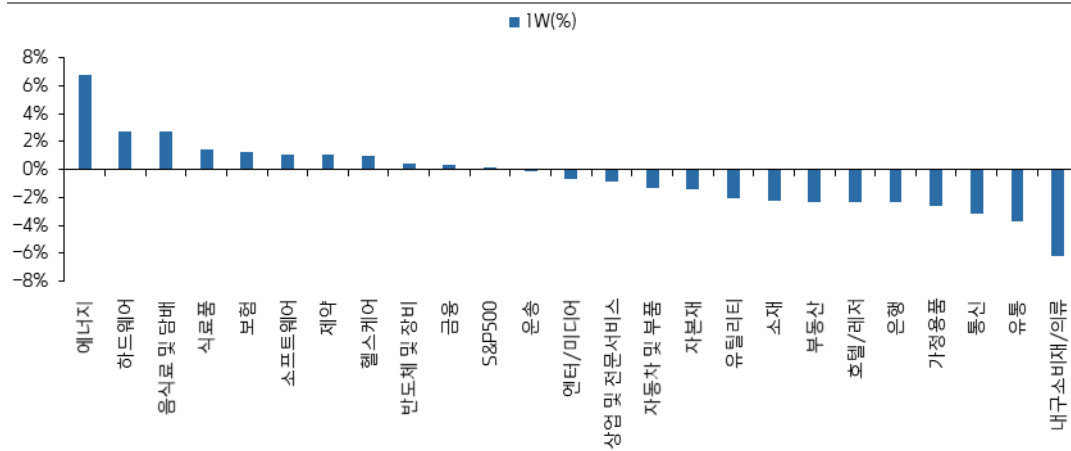
미국 중국 정상회담 주간 미국 증시 수익률 변화

(주초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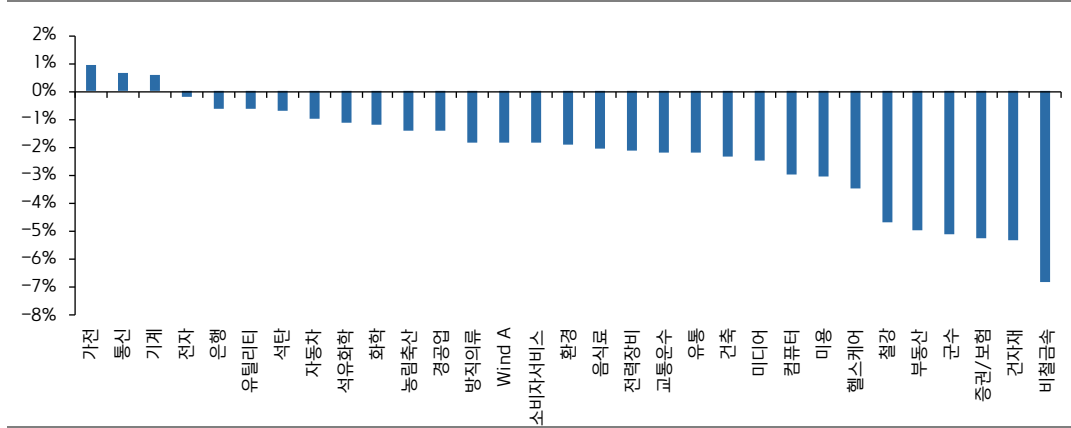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중국 정상회담 주간 미국 업종별 수익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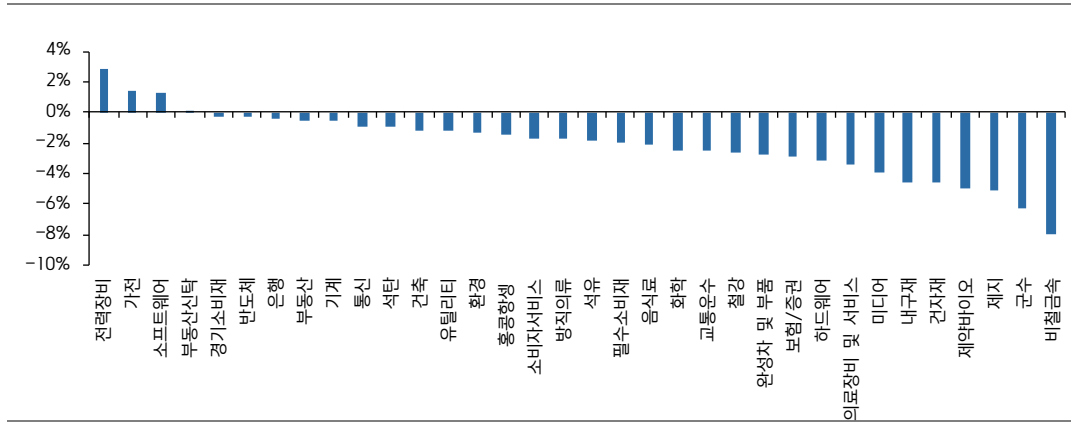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5/13~15) 본토 증시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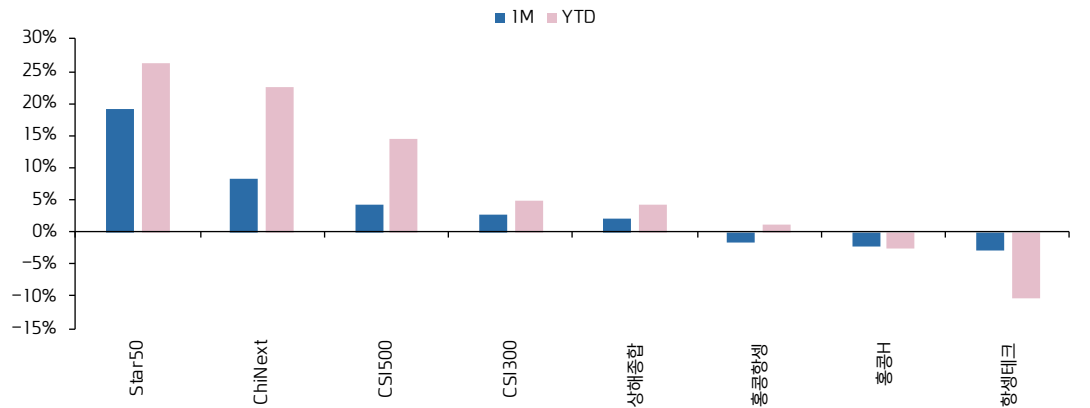
자료: Win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5/13~15) 홍콩 증시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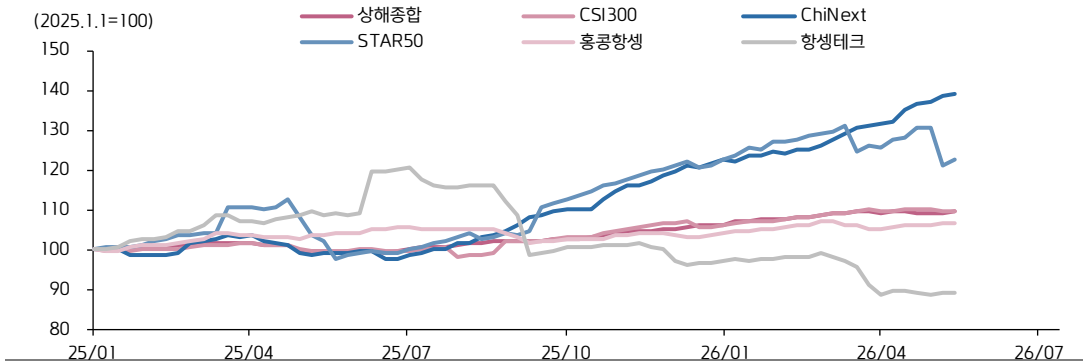
자료: Win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주요 지수 월별 수익률



자료: Win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본토 및 홍콩 주요 지수 이익 추정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